

## 시뮬레이션학습에서 역할교대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및 디브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서지영<sup>1</sup>, 최은희<sup>2\*</sup>, 이경은<sup>3</sup>

<sup>1</sup>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sup>3</sup>계명대학교 간호학과

## Effect of Role Rotation Experience on Learning Flow, Self Leadership and Debrief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Simulation Learning

Ji-Yeong Seo<sup>1</sup>, Eun-Hee Choi<sup>2\*</sup>, Kyung-Eun Lee<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up>2</sup>School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역할교대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과 디브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Y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05명이었으며, 시뮬레이션 운영을 위해 수분전해질 불균형 환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동질성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hi-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 학습 시에 역할교대 경험에 따른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브리핑 만족도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역할경험이 시뮬레이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간호 대학생들이 다양한 역할경험을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학습방법 선택의 목적인 대상자의 학습몰입과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리더십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ole rotation experience on learning flow, self leadership and debriefing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A non-equivalence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study was used and included as participants 203 junior nursing students at Y University. The experimental group (n=103) participated in the teaching class using a role rotation experience, while the control group (n=100) received conventional practice education. The outcome measurements were learning flow, self leadership, and debriefing satisfac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chi-test, and at-test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total score of learning flow and self leadership were similar in the two group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debriefing satisfaction ( $t=-2.70$ ,  $p=.008$ ), the experimental group ( $4.24\pm 0.51$ )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 $4.03\pm 0.60$ ). Although the changes regarding the learning flow and self leadership could not be identified, the debriefing satisfaction had been affected by the practice education using the role rotation experience. Therefore, to identify the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 for further details, more research with diversified subjects and varied durations is needed.

**Keywords** : Learning, Leadership, Nursing, Satisfaction,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Choi(Yeunnam University College)

Tel: +82-53-650-9388 email: eh5472@ync.ac.kr

Received May 19, 2017

Revised June 19,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간호교육 목표를 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상호 협력적 학습활동의 요구가 증가되면서 학습몰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 학습몰입과 함께 핵심역량으로 리더십이 간호교육인증 평가에 포함되면서,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또한 강조되고 있다[2].

학습몰입은 학습에 깊이 몰두하여 재미와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감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3]. 즉, 학습몰입에 대한 경험은 학습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열망을 일으켜 좀 더 새롭고 어려운 수준의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된다[4]. 최적의 학습몰입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과제 수행 목표 도달 및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있어야 하고[5],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내적 리더십이 필요하다[6]. 이러한 믿음과 내적 리더십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 셀프리더십이다[1].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의 일체로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이다[6,7]. 특히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할 때 즉각적인 대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기회가 많다. 그러므로 업무를 추진하는 간호사는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셀프리더십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8]. 특히 셀프리더십은 선천적이 아니라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고 유지 될 수 있다[6,9-11]. 그러므로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특성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직접간호 수행의 기회는 감소하고 관찰 위주의 실습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12]. 또한, 환자 상황을 학습목표에 따라 통제할 수도 없으며, 임상현장에서 현장지도자나 임상실습지도자가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적용에 대한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간호대학에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활용되고 있다[13]. 시뮬레이션 교육은 반복학습, 피드백, 평가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의 재현, 적극적인 학습자 참여를 촉진, 실무와 이론과의 통합을 포함

하는 역동적 과정이다[14].

시뮬레이션 학습에서의 간호문제에 대한 학습몰입은 실제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임상이 요구하는 간호역량을 키울 수 있다[15]. 이는 단순 관찰이 아닌 학생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임상이 요구하는 통합적 임상수행능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16]. 그러나 현재까지 시뮬레이션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학습 중 역할교대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운영할 때 다양한 역할을 교대로 경험하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디브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간호시뮬레이션 교육방법과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학습에서 역할교대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및 디브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역할교대를 경험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을 것이다.
- 역할교대를 경험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을 것이다.
- 역할교대를 경험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디브리핑 만족 정도가 높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해질 불균형 환자 간호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시뮬레이션 상황에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디브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D 광역시 Y 대학교 성인간호학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중, 연구 목적과 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수락

하고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를 위한 양측 검정 유의수준  $\alpha=.05$ , 집단 수  $n=2$ , 효과크기  $d=.05$ , 검정력=.90을 구했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88명씩 총 176명이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205명이었으며 수업 분반에 따라 임의 배정하여, 실험군 103명, 대조군 102명으로 배정하였으며 미완성 설문지를 제출한 대조군 2명의 학생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2.3 연구 도구

### 2.3.1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Klein 등이 개발한 도구로[17] 이메일을 통해 저자에게 도구사용의 허락을 받아 측정하였다. 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hronbach's  $\alpha=.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의 E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근거로[18] Shin, Kim과 Han 이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것으로[19] 이메일을 통해 저자에게 도구사용의 허락을 받아 측정하였다. 행동 중심적 전략 18문항, 자연적 보상 전략 5문항, 건설적 사고전략 12문항으로 총 3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alpha=.73-.83$ , Shin 등의 연구에서는 7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 2.3.1 디브리핑 만족도

디브리핑 만족도는 Shelly가 개발한 디브리핑 체험 도구(Debriefing Experience Scale)로[20] 이메일을 통해 저자에게 도구사용의 허락을 받아 측정하였다. 생각과 느낌 분석 4문항, 이론학습과의 연관성 8문항, 교수자의 디브리핑 진행 기술 5문항, 교수자의 적합한 지도 3문항으로 총 2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브리핑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개발 당시 Chronbach's  $\alpha=.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진행절차

역할교대 시뮬레이션 수업은 2015년 4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론수업인 체액,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의 기전과 임상 실습을 마친 3학년을 대상으로 Pre-debriefing, 시뮬레이션 실습, Post-debriefing 후 사후 조사의 순으로 운영하였다. Y 대학교에서 개발된 수분전해질 불균형 환자 사례를 적용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시나리오의 임상경력 5년 이상이거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성인간호학 교수 3인이 교과과정의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사실성과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4개 수업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의 추출로 2개 반씩 나누어 실험군, 대조군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상자들은 본인이 실험군 및 대조군에 속하는지 사전에 알 수 없었다.

### 2.4.1 Pre-debriefing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시뮬레이션 실습 전 시나리오 상황과 역할에 대해 20분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상황은 수분전해질 불균형 환자의 응급상황이며 팀 구성원 전체는 환자에게 본인 소개 및 개방형으로 대상자 확인, 환자와 눈 맞춤 유지, 환자 접촉 전 손 씻기, 환자 안위 증진을 위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역할별로는 리더는 명료하고 정확하게 역할을 지시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간호사1과 간호사2는 환자를 신속하게 사정하고 문제 있는 결과 확인과 보고 및 사정결과를 팀 리더에게 알리고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록자는 팀 구성원들의 수행을 모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실험군은 4번의 시뮬레이션 동안 역할교대를 통해 모든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조군은 실습 전 역할을 정해주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 2.4.2 시뮬레이션 실습

체액,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의 기전 및 환자 간호에 대한 학습목표에 따라 팀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험군은 시뮬레이션 실습 팀을 4명으로 구성하여 리더, 간호사 1, 간호사 2, 기록자의 모든 역할을 경험하도록 한 후에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4개의 역할을 모두 경험하기 위해 5분 시나리오를 4번 반복하였으므로 시나리오 구현에 20분을 소요한 뒤 디브리핑에

참여하였다.

대조군은 시뮬레이션 상황에 필요한 4개 역할 중 하나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하여 20분 동안 4번 반복 학습하도록 한 후 디브리핑에 참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뮬레이션 운영시간은 동일하게 Pre-debriefing, 시뮬레이션 실습, Post-debriefing 시간을 포함하여 90분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였다.

### 2.4.3 Post-debriefing

실험군, 대조군 모두 시뮬레이션 실습이 끝난 직 후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 및 회수하였고,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이었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두 그룹의 동질성 검정은 chi-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과 디브리핑 만족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K대학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No:40525-201504-H - 14-02)을 받고, 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설문지 배포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취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연구에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성적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22.7세와 22.3세이었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90%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임

상실습만족도 및 대처경험에서 중간이상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만족도와 대처경험이 중간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동질성 검증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는 연령, 성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대처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Characteristic		Exp.	Cont.	t/χ <sup>2</sup>	p
		(n=100) n (%) or M±SD	(n=103) n (%) or M±SD		
Age(year)		22.73±1.44	22.38±1.59	-1.61	.110
Sex	Male	8( 8.0)	6( 5.8)	1.43	.488
	Female	92(92.0)	97(94.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62(62.0%)	64(62.1)	2.11	.349
	Neutral	36(36.0%)	39(37.9)		
	Poor	2( 2.0%)	0( 0.0%)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47(47.0%)	49(47.6%)	0.33	.848
	Neutral	52(52.0%)	52(50.5%)		
	Non-Satisfaction	1( 1.0%)	2( 1.9%)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53(53.0%)	46(44.7%)	2.95	.399
	Neutral	44(44.0%)	53(51.5%)		
	Non-Satisfaction	3( 3.0%)	4( 3.9%)		
Coping experience	Stronly bad	1( 1.0%)	0( 0.0%)	4.39	.356
	Bad	5( 5.0%)	6( 5.8%)		
	So-so	40(40.0%)	36(35.0%)		
	Well	48(48.0%)	59(57.3%)		
	Strongly well	6( 6.0%)	2( 1.9%)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3.2 역할교대에 따른 학습몰입

역할교대에 따른 두 그룹 간의 학습몰입은 실험군 평균 4.06±0.54점, 대조군 4.13±0.6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85, p=.399).

Table 2. Difference of learning flow score (n=203)

Variable	Exp.	Cont.	t	p
	(n=100) M±SD	(n=103) M±SD		
Learning flow	4.06±0.54	4.13±0.63	0.85	.399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3.3 역할교대에 따른 셀프리더십

역할교대에 따른 두 그룹 간의 셀프리더십은 실험군

3.68±0.41점, 대조군 3.74±0.44점으로 대조군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06, p=.291$ ). 셀프리더십의 하위 영역인 행동 중심적 전략( $t=1.48, p=.142$ ), 자연적 보상전략( $t=0.73, p=.469$ ), 건설적 사고전략( $t=0.19, p=.846$ ) 모두 대조군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Difference of self-leadership score (n=203)

Variable	Exp. (n=100)	Cont. (n=103)	t	p
	M±SD	M±SD		
Self-leadership	3.68±0.41	3.74±0.44	1.06	.291
Behavior focused strategies	4.06±0.54	4.13±0.63	1.48	.142
Natural reward strategies	3.68±0.41	3.74±0.44	0.73	.469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4.24±0.51	4.03±0.60	0.19	.846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3.4 역할교대에 따른 디브리핑 만족도

역할교대에 따른 두 그룹 간의 디브리핑 만족도는 실험군 평균 4.24±0.51점, 대조군 평균이 4.03±0.60점으로 실험군의 평균 점수가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70, p=.008$ ). 디브리핑 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생각과 느낌 분석( $t=-2.32, p=.021$ ), 이론학습과의 연관성( $t=-2.33, p=.021$ ), 교수자의 디브리핑 진행기술( $t=-2.84, p=.005$ )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가 대조군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수자의 적합한 지도 영역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77, p=.078$ ).

**Table 4.** Difference of debriefing satisfaction (n=203)

Variable	Exp. (n=100)	Cont. (n=103)	t	p
	M±SD	M±SD		
Debriefing satisfaction	4.24±0.51	4.03±0.60	2.70	.008
Analyzing of thought and feelings	4.00±0.61	3.78±0.68	2.32	.021
Connection with theory	3.71±0.50	3.54±0.58	2.33	.021
Debriefing skill of facilitator	4.30±0.60	4.05±0.67	2.84	.005
Appropriate guidance	2.67±0.39	2.56±0.41	1.77	.078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4. 논의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의 보완적 역할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은 새로운 수업 설계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 간호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에서 많이 적용하는 역할교대를 통한 시뮬레이션 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디브리핑 만족도를 파악하여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역할교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습몰입은 학습과정과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자 변인이며 학습효과 측정에 유용한 변수로[21] 본 연구결과, 역할교대 경험을 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습몰입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습몰입은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험처치 1회로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유의하게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효과는 최소 4주 이상의 시뮬레이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22].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몰입 점수는 5점 만점에 실험군 평균 4.06점, 대조군 4.1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학습 후 학습몰입을 조사한 Oh와 Kang [23]의 연구에서 3.34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에서 4회 연속으로 시뮬레이션 반복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점수는 최대 5점에 실험군 평균 3.68점, 대조군 평균 3.74점으로 대조군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ang과 Moon의 3.72점 보다 실험군은 낮게 나타났고, 대조군은 높게 나타났으며[7], Lee, Lee와 Kim의 3.43점[9], Lee, Park과 Kim의 3학년 3.43점 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0].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습하는 등 자율성과 열정을 수반하게 된다[6]. 그러므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을 보다 다각적으로 기획하고, 제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디브리핑 만족도 점수는 최대 5점

에 실험군 평균 4.24점, 대조군 평균 4.03점으로 역할교대 경험을 한 실험군이 대조군의 디브리핑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학습자의 흥미 유발이며[24], 이를 통해 적극적인 학습참여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25,26]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상황에 있는 모든 역할을 교대로 경험한 실험군에서 디브리핑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러 역할을 경험하면서 연구 대상자의 흥미와 학습동기가 유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군에 사용된 디브리핑 방법은 교수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실습에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교수자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역할교대를 통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간호교육을 시작하는 초보 교육자에게 매우 유용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역할교대 시뮬레이션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추후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디브리핑 만족도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해 교육방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대학생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수업의 다양화와 활용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역할교대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실무수행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역할교대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디브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시뮬레이션 교육방법과 전략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결과 역할교대 경험을 한 실험군은 하나의 역할을 한 대조군보다 디브리핑 만족도가 향상된 반면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시뮬레이션 기반 수업기간이 디브리핑 만족도 향상에는 충분한 교육 시간이었으나,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의 향상

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역할교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의 적용기간을 늘려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57-156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3.1557>
-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vailable From <http://kabone.or.kr/kabon02/index03.php> (accessed May, 01, 2017)
- [3] I. B. Suk, E. C.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ing Flow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23, no. 1, pp. 121-154, 2007. DOI: <https://doi.org/10.17232/KSET.23.1.121>
- [4] S. J. Lee,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2, pp. 235-253, 2011.
- [5] S. H. Kang,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Self 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4, no. 6, pp. 935-949, 2012.
- [6] C. C. Manz, H. P. Sims,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Oxford : Pergamon Press, 1991.
- [7]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2.216>
- [8]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2.143>
- [9] M. O. Lee, M. Y. Lee, S. Y. Ki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417-425,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3.417>
- [10]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nati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11] S. B. Choi, M. S. Lim,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 Satisfaction and Outcome of Learning: Focused on Self-leadership and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ulty Trust of Undergraduate Student”,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vol. 14, no. 3, pp. 65-84, 2012.
- [12] K. C. Lim, “Direction of Simulation-based Learning in Nursing Practice Education: A Systemic Review”,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pp. 246-256,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2.246>
- [13] S. H. Kim, H. A. Nam, M. O.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Process and Simulation-based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n Pediatric Nurs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0, no. 4, pp. 294-303, 2014.  
DOI: <https://doi.org/10.4094/chnr.2014.20.4.294>
- [14] A. J. Bland, A. Topping, B. A. Wood, “Concept Analysis of Simulation as a Learning Strategy in the Educa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1, pp. 664-670, 2011.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0.10.013>
- [15] H. W. Kim, E. Y. Suh, “Nursing Students’ Immersion Experience in a Comprehensive Simulation Scenario Using High-fidelity Human Patient Simulator among Nursing Students: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30, no. 1, pp. 89-99, 2012.
- [16] M. Stoker, M. Burmester, M. Allen, “Optimization of Simulated Team Train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Learning Theories: a Debate for a Conceptual Framework”, *BMC Medical Education*. Available From <http://bmcomeduc.biomedcentral.com/articles/> (accessed May, 01, 2017)  
DOI: <https://doi.org/10.1186/1472-6920-14-69>
- [17] H. J. Klein, M. J. Wesson, J. R. Hollenbeck, P. M. Wright, R. D. Deshon, “The Assessment of Goal Commitment: A Measurement Model Meta-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18, no. 1, pp. 32-55, 2001.  
DOI: <https://doi.org/10.1006/obhd.2000.2931>
- [18]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7, no. 8, pp. 672-691, 2002.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19] Y. K. Shin, M. S. Kim, Y. S.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3, pp. 313-340, 2009.
- [20] J. D. Shelly, Debriefing Experience Scale: Development of a Tool to Evaluate the Student Learning Experience in Debriefing”, *Clinical Simulation Nursing*, vol. 8, no. 6, pp. 211-217, 2012.  
DOI: <https://doi.org/10.1016/j.ecns.2011.11.002>
- [21] J.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ing,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8, no. 2, pp. 67-92, 2010.
- [22] Y. H. Kim, K. S. Jang, “Effect of a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Emergency Care Knowledg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 41, no. 2, pp. 245-255, 2011.  
DOI: <https://doi.org/10.4040/jkan.2011.41.2.245>
- [23] Y. J. Oh, H. Y. Kang, “Metacognition Learning Flow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imulation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3, pp. 239-247, 2013.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3.239>
- [24] R. M. Fanning, D. M. Gaba, “The Role of Debriefing in Simulation based Learning”, *The Journal of the Society for Simulation in Healthcare*, vol. 2, no. 2, pp. 115-125, 2007.  
DOI: <https://doi.org/10.1097/SIH.0b013e3180315539>
- [25] J. H. Lee, S. S. Kim, K. S. Yeo, S. J. Cho, H. L. Kim, “Experiences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on High-fidelity Simulation Education: A focus Group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2, pp. 183-193, 200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9.15.2.183>
- [26] E. N. Ryoo, Y. S. Park, E. H. Ha, “Outcomes and Satisfaction of Simulation-based Learning in Nursing of Patient with UGI Bleed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3, pp. 1274-1282,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3.1274>

서 지 영(Ji-Yeong Seo)

[연희원]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졸업(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최 은 희(Eun-Hee Choi)

[연희원]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졸업(간호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 질병예방

이 경 은(Kyung-Eun Lee)

[연회원]



- 2017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중양환자 삶의 질, 시뮬레이션 교육